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뉴스레터

Newsletter of the Korea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2018년 4월호

- 홈페이지 : www.kmeea.com
- 메일주소 : kmeea@hanmail.net
- 학회주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410
- 전화번호 : 02-880-7726

I

삶의 의미 탐색에 도움을 주는 도덕 교육

추 병 완(춘천교육대학교, 본회 전임회장)

인간은 의미를 만들기 위해 인생에서의 사건과 경험을 결합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경향성이기에, 비록 삶의 의미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다소의 개인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구나 삶의 경로에서 경험해야 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과정이다. 이렇듯 의미를 추구하려는 경향성은 끝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이 시도하는 적극적인 삶의 적응 기제이다.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일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변화하는 삶의 상황에서 웰빙과 성공적인 적응을 증진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인(construct)이다. 특히 과도한 입시 경쟁이 유발하는 시험 불안이나 우울 증세로부터 우리의 학생들이 회복탄력적인 대처와 적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 추구가 필수적이다.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진지하게 다루었던 사항이다. 물론 그들이 삶의 의미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기 나름의 대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인간의 기능에 관한 설명 그리고 칸트(Kant)의 최고선 개념을 예로 들어보자. 이 두 개념은 행복과 도덕에 관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궁극 목적을 담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삶의 의미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은 심리학에서도 이론적·경험적 탐구의 대상이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사소하고 순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이 혼돈을 초월하는 일관성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삶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도덕 교과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왔기에, 전통적으로 삶의 의미는 도덕 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2015년에 고시된 새 교육과정에서 삶의 의미는 도덕과의 총괄 목표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새 교육과정에 따르면, “도덕과는 기본적으로 성실, 배려, 정의, 책임 등 21세기 한국인으로서는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성의 기본 요소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일차

적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덕적 탐구 및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으로 이어지는 도덕함의 능력을 길러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교육부, 2015, p. 4).

그러나 도덕 교과에서 삶의 의미에 관한 내용은 학습 위계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실제로 새 교육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중학교 도덕의 ‘자신과의 관계’ 영역에만 국한되고 있다. 이를테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도덕적인 삶)’,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자아 정체성)’,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목적)’, ‘행복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행복한 삶)’과 같은 학습 내용이 삶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있으나, 삶의 의미에 관한 자율적인 탐색이 주로 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후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런 내용이 중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뿐 그 이후에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도덕 수업을 통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치·덕목에 대한 학습을 전반적으로 강조할 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는 다소 소홀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자신을 넘어선 공동체와 세계에도 도움을 주는 다양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도덕교육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II

학회 동정

1. 춘계학술대회 안내

오는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0-1동 103호에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신진 학자 학술 연구 성과 발표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세 분의 학위 논문 요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표 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13:30-14:00	등 록	
14:00-14:10	◆ 개회사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회장, 전주교대)	이재호 (본회 총무이사, 광주교대)
14:10-14:50	제1주제 발표 발표주제: 학교통일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발 표 자: 김병연(양재고) 토 론 자: 황인표(춘천교대), 차승주(통일부)	박찬석 (공주교대)
14:50-15:00	휴 식	
15:00-15:40	제2주제 발표 발표주제: 사회정서학습을 적용한 학교인성교육 정책 방향 연구 발 표 자: 김윤경(경기양진중) 토 론 자: 이인재(서울교대), 윤영돈(인천대)	정탁준 (전남대)
15:40-15:50	휴 식	
15:50-16:30	제3주제 발표 발표주제: 도덕교육으로서 '벗다 대화법' 발 표 자: 신희정(창원중앙고) 토 론 자: 임명희(공주교대), 이철주(한국교원대)	박성춘 (서울대)
16:30-16:40	휴 식	
16:40-17:20	종 합 토 론	노희정 (광주교대)
17:20-17:30	폐 회 식	박병춘 (본회 회장, 전주교대)

2.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저희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2017 학술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늘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투명한 학회비 및 사업비 사용을 회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Ⅲ

회원 동정

1. 출간 안내



○ 본 학회의 고문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김태훈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인성과 교육』이 4월 초 양서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성의 구조와 특질 모델, 행동주의와 사회학습 모델, 인본주의 모델, 구성주의 모델, 인지구조 발달 모델, 배려 윤리 모델, 인격 교육 모델, 신경철학적 모델 등 고전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현대적 이론에 이르기까지 인성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쟁점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장승희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불교사상의 현재성과 윤리교육』이 3월 10일에 경인문화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불교의 핵심 주제들을 윤리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불교사상과 윤리교육의 통섭을 통해 오늘날 윤리 문제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불교사상이 어떻게 수용되어 다루어졌는지 분석함으로써, 윤리교육에서 불교의 위상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연구 안내



○ 본 학회의 학술이사이신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박성춘 교수님께서 "질문과 개념으로 보는 통일교육" 온라인 교육영상(8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교육영상은 통일교육의 방법, 남북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 남북한의 관계, 독일의 통일 방법 및 통일 후유증 극복 방안, 북한 이탈 주민의 삶, 통일의 필요성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tongiledu.snu.ac.kr/>를 통하여 교대, 사대 예비교사들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을 위한 통일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차우규 교수님께서는 한국학교안전학회 수석부회장으로서 2018년 3월 ~ 8월 기간에 <학교안전법>에 따른 「2018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책임을 맡아, 전국 22,000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중국 및 베트남 소재 재외 한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교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취임 안내

- 본 학회의 부회장이신 송재범 선생님(前구현고등학교 교장)께서 2018년 3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IV

공지 사항

1. 학회비 안내

본 학회의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을 연 4회 구독하실 수 있으며 학술대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정산되오니, 연 초에 연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회비 : 일반 회원 3만원 / 이사 및 임원진 : 10만원

※ 납부 계좌 : 농협 302-1154-0960-31, 예금주 : 박병춘(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 학회비를 입금하실 때 반드시 성함과 함께 소속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천중학교 홍길동 → 홍길동 봉천

납부 명단

○ 특별회비 : 박동준(100만), 박병춘(100만)

○ 연회비 : 고미숙(3만), 김병연(3만), 김상돈(10만), 김연숙(50만), 김태훈(10만), 김흥태(3만), 김혜진(3만), 박형빈(10만), 이인태(3만), 이준경(3만), 이청호(6만), 추병완(10만)

○ 평생회원 : 김연숙, 박균열, 박동준, 박병기, 서은숙, 이경희, 이인정, 정탁준, 최형찬

○ 기관회원 : 전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청주교육대학교도서관(10만)

※ 18. 3. 16 기준

2. 투고 안내

학술지 『도덕윤리과교육』의 59호 투고 논문을 모집합니다. 투고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의 잼스 시스템(kosmee.jams.kr)을 통해 4월 27일(금)까지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